

강 건너 봄이 오듯

악상 기호를 살려 풍부한 발성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.



송길자 시 | 임금수 작곡

Andante
mp

A \flat Cm D \flat F7 B \flat m B \flat 7 E \flat 7

앞 강 에 살 일 음 은 언 - 제 나 풀 릴 거 나 짐 새
도 강 물 따 라 뗏 목 처 럼 흐 를 거 나 새

5 **mf** A \flat F B \flat rit. D \flat a tempo E \flat 7 A \flat

실 은 배 - 가 - 저 만 큼 새 벽 안 개 헤 쳐 왔 네 언 -
소 리 바 - 람 - 소 - 리 물 흐 르 듯 나 부 끼 네 내 마

9 Cm G7 Cm E \flat B \flat 7 E \flat G7

분 흥 꽃 다 발 한 - 아 름 안 고 서 물 - 건 너 우 려 한
음 어 둔 골 에 나 의 봄 풀 어 놓 아 화 - 사 한 그리 움

14 Cm C7 Fm C Fm B \flat 7 E \flat 7 *f* **그 음만 특히 세**

빛 - 을 우 려 한 빛 - 을 강 마 을 에 내 리 누 나 앞 강
말 없 이 그리 움 말 없 이 말 없 이 흐 르 는 구 나 오 늘

18 A \flat Cm D \flat F B \flat m B \flat 7 E \flat

에 살 일 음 은 언 - 제 나 풀 릴 거 나 짐 새
도 강 물 따 라 뗏 목 처 럼 흐 를 거 나 새

22 A \flat F7 B \flat m B \flat dim B \flat m E \flat 7 1. A \flat *mp*

실 은 배 - 가 - 저 만 큼 새 벽 안 개 헤 쳐 왔 네 오 늘
소 리 바 - 람 - 소 - 리 물 흐 르 듯 나 부 끼 네

26 2. A \flat F B \flat m E \flat 7 A \flat E \flat A \flat

네 - 물 흐 르 듯 나 부 끼 네 -



이 노래는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이 특징이며,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.

• 노래 부를 때 바른 자세

시선을 정면보다 조금 위에 두고 허리를 편다. 숨을 빠르게 들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입속을 넓혀 구강, 인두강을 공명시킨다.

1 악상 기호와 임시표에 유의하며 풍부한 발성으로 노래 불러 보자.

